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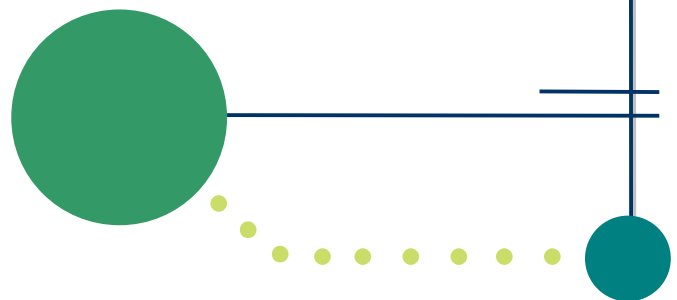




중남미 게임 시장 동향

- 게임 속에 나타나는 남미의 3가지 이미지
- Disney의 게임포털 Club Penguin, 브라질 진출
-  佛 Ubisoft, 브라질 게임업체 Southlogic Studios 인수



게임 속에 나타나는 남미의 3가지 이미지

● 게임 속 히스패닉에 대한 왜곡된 3가지 이미지

- ◆ 게임 웹진 Escapist Magazine에 따르면, 게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라틴계(히스패닉)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가 조직폭력배의 일원이거나 대형 참극의 희생자, 매춘부 등의 성적 대상, 또는 기타 범죄에 연루된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Children Now의 연구조사와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의 Elizabeth Behm-Morawitz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베스트셀러 게임에서 라틴계 캐릭터의 등장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과 게임 업계 인력 구성 면에서 히스패닉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게임 디자인에서 판타지와 현실도피적 요소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나, 우리와 다른 배경을 지닌 집단을 공정하게 바라볼 책임도 필요
- ◆ [조직폭력배] 다수의 히스패닉이 등장하는 게임으로는 'Grand Theft Auto', 'Saint's Row', 'Crackdown' 등 도시 배경의 범죄폭력게임 장르가 대표적이며, 이들 게임에 등장하는 라틴계 캐릭터는 대부분 폭력적이고, 범죄를 저지르며, 성적으로 묘사되는가 하면 변태 성욕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조연자] 'Silent Hill 4'의 'Cynthia Velasquez'를 포함, 'Gears of War 2'의 'Maria Santiago', 'Silent Hill 2'의 'Angela' 등의 캐릭터는 게임 내에서 스토리상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인물 자체의 비중보다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등의 조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성적 대상화] 좀비 학살을 소재로 한 'Dead Rising'에 등장하는 'Isabela Keyes'는 게임 내용이나 캐릭터와 상관 없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반면, 'Dead Rising'의 주인공 'Frank West'의 경우, 매우 정상적인 복식을 갖추고 있는 점도 라틴계 여성 이미지 왜곡의 대표적 사례
 - 이 글의 필자 Gonzalez는 라틴계의 '정열적' 요소가 오랜 과거부터 있어온 고정관념이며, 게임이라는 판타지의 영향으로 완벽한 외모와 비현실적이며 적나라한 복장이 용인되고 있다고 설명

● 긍정적인 사례

- ◆ Gonzalez는 "일부 사람들의 라틴계에 대한 고정관념, 즉 터프하고 광신적이며 불같은 정열의 소유자라는 요소는 재미있게도 게임 속 영웅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며, 폭력적이며 때로는 선정적인 히스패닉의 이미지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덧붙임

- 그는 “현재 영리하고 활동적이며 재능있는 쌍권총의 여전사이자 라틴계 외모를 가진 'Tomb Raider'의 주인공 'Lara Croft'가 남미 사람 'Laura Cruz'라는 설정이었다는 사실에 놀란 적이 있다”며, 'Tomb Raider'의 디자이너 Toby Gard가 Eidos의 "영국 친화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일화도 소개
- ◆ Gonzalez는 다행히 히스패닉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며, 'The Longest Journey' 시리즈의 'Zoe Castillo'와 'Sly Cooper'의 'Carmelita Fox', 'True Crime: Streets of LA'의 'Rosie Velasco'를 소개
-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3%에 불과한 히스패닉 개발자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음

Disney의 게임포털 Club Penguin, 브라질 진출

🌐 'Club Penguin', 최초로 비영어권 시장 진출

- ◆ Walt Disney의 아동용 가상세계 서비스인 'Club Penguin'이 처음으로 비영어권인 브라질에 지난해 말 출시된 것으로 알려짐
- New Horizon Interactive(2005년 설립)이 개발한 'Club Penguin'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펭귄 아바타를 만들 수 있으며, 채팅, 미니 게임, 단순 탐험 등도 가능한 서비스로, 플레이는 무료이나 캐릭터 꾸미기 등의 부가 서비스 이용료는 월 5.95 달러를 내야 하며, 6개월 이상 약정시 부분 할인이 적용됨
- 특히 아동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어 부모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시 2년 만에 1,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부가 기능과 가상 아이템 수집을 위해 매월 5.95~6.95달러를 지불하는 유료 이용자는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Disney가 지난 2007년 8월 7억 달러에 인수한 서비스로, 기존에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영어권에서만 서비스됐음

🌐 향후 전망

- ◆ Disney의 'Club Penguin' 서비스의 해외 진출은 브라질 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프랑스와 같은 유럽 지역과 남미의 여타 나라들에게까지 이어질 전망
-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 Disney가 Penguin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투자의 적기라고 지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포트폴리오 만큼의 자원 투입이 요구됨
- 'Club Penguin' 전용 Pixar 영화 제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www.clubpenguin.com/pt

佛 Ubisoft, 브라질 게임업체 Southlogic Studios 인수

●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게임 개발사 Southlogic를 지난 1월 20일 인수

- ◆ 브라질 Port Alegre에 위치한 Southlogic은 1996년 설립 후 약 20여 명의 개발자를 두고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게임 개발 및 아트 아웃소싱 및 포팅 서비스를 병행하는 업체
 - Southlogic은 지난 2008년 11월 Nintendo DS용 캐주얼게임인 'Imagine:Wedding Designer'를 개발하여 Ubisoft를 통해 출시한 바 있음

● 인수 배경 및 전망

- ◆ Ubisoft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며 향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 전역의 사업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Southlogic은 Ubisoft의 기존 브라질 Sao Paulo 와 단일체계로 관리되며, Ubisoft 브라질 스튜디오의 Managing Director인 Bertrand Chaverot이 관리할 예정

 www.ubi.com  www.southlogic.com